

가격 폭락 전어·대하 사잡시다

해남·신안 등지 재고량 넘쳐 어가 '울상' 市·道교육청 등 소비촉진 운동 벌이기로

양식 전어와 대하의 재고량이 크게 늘어 나면서 대규모 폐사가 우려돼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양식 전어 주산지에서 생산된 전어는 해남 260t, 신안 245t, 영광 193t, 무안 173t 등 모두 886.8t으로 이 가운데 77.6t만

판매되고 나머지 809.2t은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양식 대하도 신안 564t, 해남 81t, 완도 70t, 고흥 21t 등 모두 783t이 생산됐으나 절반이 조금 넘는 446t만 판매되고 나머지 337t은 재고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올해 전어 재고량이 많은 것은 자연산 전어 어획량의 급증과 수요 예측이 빗나간 데 따른 공급 과다로 수요가 끊겼기 때문이다. 자연산 전어는 올 가을에 1천936t이 잡혀 지난 해의 1천799t에 비해 7.6% 증가했다. 특히 전어는 수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연 폐사할 수 밖에 없어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양식어민들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kg당 2~3천원에 판매

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래가 끊긴 상태. 이에 따라 전남도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도 본청과 사업소, 시·군 직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양식 전어·새우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광주시·전남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등에 급식 식재료로 전어와 새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홍행기자 redplane@



담양 반딧불영농조합 유기농업인대회 대상

담양군 무정면 반딧불 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형식)이 최근 한국 유기농업협회에서 주최한 '제 8회 유기농업인 전국대회'에서 유통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반딧불 영농조합법인은 15년전부터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해왔으며 기반시설 정비 확충 및 농산물 유통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도시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와 판매계약을 체결,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출하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도 앞선 해 지난해 31억원, 올해 3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유기농 유통대상은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친환경 농가 및 단체 중에서 3개 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담양=차재희기자 jhw@

함평 국향대전 더 볼 수 있어요

군, 관광객 몰리자 25일까지 축제기간 연장

지난달 26일부터 함평군 신광면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07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25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

함평군은 국향대전에 선보인 국화들이 25일까지도 고운 빛깔과 자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어 축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2007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자연생태공원 진입부 3만3천㎡에 드넓

은 국화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국화로 만든 독립문과 찻상대, 예쁜담, 곤충 등 특수 모형 작품과 분재 작품 전시관 등으로 꾸며져 있다.

또 부대행사로 지난 1·2일 열린 제 2회 전국 문화관광 해설사 경연대회와 9일 진행된 제2회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 등 문화예술 행사

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15일까지 유료 관광객만 11만6천여명이 다녀가 4억5천여만원의 입장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세계질 테마가 있는 관광 함평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해 지난 2004년 처음 개최해 올해로 4회째인 2007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전국 최대의 국화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넓은 창고 손질 깨끗한 경로당 탈바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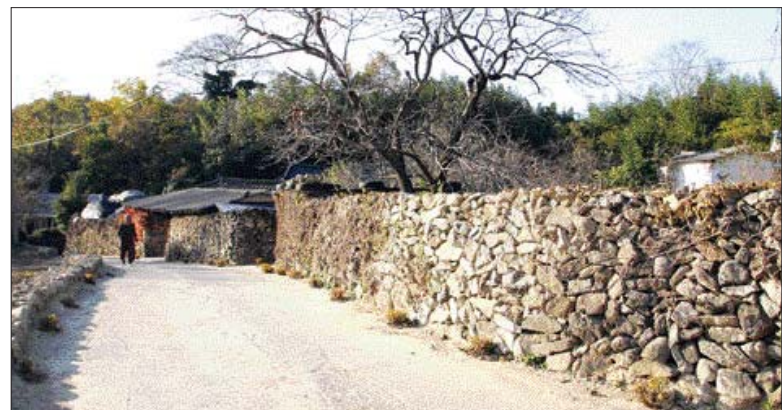
금호타이어 직원 30명 광산 삼도동 쌍내마을서 구슬땀

대기업 직원들에 의해 넓은 마을 창고가 산뜻한 경로당으로 변신했다. <사진> 30세대가 거주하는 광산구 삼도동 쌍내마을은 광산에서 도 외진 곳으로 30여년 전에 지어진 마을 창고를 경로당 대용으로 사용했다.



광산구로 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금호타이어 설비부(부장 노진권) 직원 30여명은 지난 5일부터 마을창고를 경로당으로 개조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설비부 직원들은 2교대로 조를 짜 퇴근 후 창고 개축을 위해 헌신을 기울였다. 이들은 지붕을 보수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일러

를 설치했으며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 넓은 창고를 산뜻한 경로당으로 탈바꿈 시켰다. 멋진 경로당이 준공된 지난 9일 쌍내마을 주민들은 금호타이어 설비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광산구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금호타이어 직원들의 선행이 오지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장흥 안양면 비동마을 '최우수'

행정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선정

장흥군 안양면 비동마을이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2007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에 주어지는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에는 전국 16개 시·도, 153개 시·군·구에서 1천198마을이 참가했으며 시·도 예선과 행정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최우수 마을이 선정됐다. 비동마을은 그동안 '행동마을 우물가에 동네쳐너 돌아왔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옛 영두나무 골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영두나무 식재 ▲돌담확충 및 옛 우물복원 ▲연못공원 조성 등 다양한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사진>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리며 최우수 마을에는 별도의 상사업비가 지원된다. 김희택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 총무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비동마을이 더욱 살기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 옴천 '토하'

초겨울 추위속에 강진군 옴천면에서 토하(土蠟)잡이가 한창이다. 공중 진상품이었던 옴천 토하는 14농가가 10여ha에서 연간 2천여kg를 생산하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고흥군-지역 기업 손잡고

'상생플러스 캠페인' 전개

고흥군이 내고장 사랑 실천운동인 '상생플러스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상생플러스 캠페인'은 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범 군민적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이다. 고흥군은 또 금융권과 함께 협약기업, 출향인 등이 자기 고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금액이 내고장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 '내고장 사랑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고장 사랑 카드와 예금은 각각 카드 사용액의 0.2%와 만기예금액의 0.15%가 내고장 발전기금으로 적립되며, 이 기금은 소외계층돌봄과 장학사업 등 고향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고흥군은 이같은 캠페인이 지역 전락산업인 우주항공 산업과 신 재생에너지 산업, 건강·휴양 산업, 조선 산업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5일 시장' 낭만·추억 새겨요

26일까지 해남 '장터 문화축제'

한국에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해남군 지부와 해남을 5일 시장 번영회가 해남을 고도리 5일 시장에서 '장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6일 처음 열린 장터 문화제는 재래시장의 정취와 낭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6일에 열리는 해남 5일 시장은 타지역 5일 장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반해 규모가 커지는 등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잡아가고 있다. 정동복 예총 해남군 지부장은

"지역 출신 향토가수를 비롯한 고전무용과 에어로빅, 각설이 타령 등 서민위주의 프로그램과 즉석 노래자랑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터 문화축제는 오는 26일, 12월 6·16·26일 열릴 예정이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OPEN 11월 20일
상무지구 추억의 콘서트
랜드피아 7080
유명악기전문가수 교재출판
최성규 목관악기
비행기까지 찾아와: 리노 살인
송영아·오정민·고희영 등 특별 출연
상무지구 랜드피아 인터스텝 지점
Tel. 062-381-5542, 382-5542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예쁜 선반까지 완벽하게 차려드립니다
0611-383-8283
www.dangyanghan.com